

#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the Mentoring Program on Married Immigrant Women

양순미\*\* · 김승희\*\*\* · 이미화\*\*\*\* · 김미숙\*\*\*\*\*

Soon Mi Yang · Seung Hee Kim · Mi Hwa Lee · Mi Sook Kim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mentoring program affects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mentors. The mentoring program as a man-to-man program was conducted in 2009 and provided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an agricultural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used a case study as a research method and collected data using interviews and observations. Participants were selected according to Patton's (2002) purposeful sampling strategies, and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were evaluated by the method of Evaluation Checklist.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study, this study used both triangulation and peer examination. By including the diverse aspects of the mentoring program, this study shows that each case has speci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mentors. As a result, this qualitative research project provided the detailed picture of the

\* 본 연구는 2009년 농협중앙회 용역과제로 수행된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 농업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일부분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재해예방과 농업연구사. e-mail: Ysm@Korea.kr

\*\*\*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교신저자). e-mail: seuhkim@gwangju.ac.kr

\*\*\*\* e-mail: miwha78@empal.com

\*\*\*\*\* 한식재단 기획팀장. e-mail: kimms2k@yahoo.co.kr

mentoring program by specifically describing how married immigrant women had a relationship with their mentors.

주요어(key words): 사례 연구(Case Study), 여성결혼이민자(Married Immigrant Women),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 질적 연구 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1. 서 론

현재 우리의 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극심한 부족으로 농촌지역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즉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많은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농사일의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들에 의해 꾸려지고 있다. 특히, 농촌 미혼인구의 성비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이는 농촌의 저발전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농촌기피현상으로 농업인이 배우자감으로 선호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도시로의 이동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이다(양순미 2006a, 2006b). 결과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이른 농촌 미혼 남성들의 대다수가 결혼 시기를 놓치면서 인구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농촌 미혼 남성들의 비자발적 만혼 문제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 미혼 남성들의 비자발적 만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촌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결혼 형태는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창출하게 되었다. 농촌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체 여성 농가인구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6.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성결혼이민자가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2020년에 19세 미만 농가 인구의 거의 절반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전남대학교, 2009).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으로서 그들의 역할과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자녀들은 미래의 잠재적인 농업 인력으로서 농촌지역의 중심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촌에 정착시키는 것은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이끌 중심 인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며, 미래의 핵심 농업 인력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농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농업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나 프로그램의 경우,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둔 언어와 문화 등 기초교육 위주로 진행이 되어 농업교육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거나 일회성을 띠고 있다(양순미 2006b, 양순미 · 한준희 · 양정남, 2009). 이러한 기존 연구나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총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009년도 '이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관리 및 개입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육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주변에 있는 선도 농가의 여성농업인을 후견인으로 내세우면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이 1:1로 만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농업교육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생활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약 630쌍의 후견인과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한 2009년도 '이

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 여성결혼이민자의 처지, 후견인의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다양성은 개개의 사례에 유의미성을 부여하는 반면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의 관점과 입장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한 거시적인 그림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농업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도 '이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나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가 주로 양적 측정 결과에 근거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어떻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의 경우, 만족도를 점수화하여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만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어떤 측면에 왜, 어떻게 만족하고 무엇을 개선코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프로그램의 주체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해와 요구보다 정책입안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가 분석,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도 '이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농업교육프로그램으로서 필요한 요인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과제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즉, 멘토로서 후견인과 멘티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가지는 성과와 한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내용은 멘티로서 여성결혼이민자가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영농인력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는가 하는 점과 한국 문화와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는가하는 점이다. 즉 멘토링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내용은 멘토인 후견인의 입장에서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이 멘토인 후견인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대인관계기술과 리더십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가하는 점이다. 즉 단지 여성결혼이민자를 도와준다는 차원을 넘어 수평적이고 주체적 관계로서 이 멘토링이 후견인 자신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내용은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진행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의도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실현되었는가하는 점이다. 멘토인 후견인을 발굴하고 멘토링을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연결시켜주는 과정에서 최대한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의 처지를 배려하고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 2. 선행연구 고찰

### 2.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교육 현황 및 문제점

양순미, 최규홍과 강경하(2009)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농촌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69%가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 중 지속적으로 농업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경우는 82%에 달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44%만이 한국에 오기 전에 친정국가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며(베트남 76%, 캄보디아 53%, 필리핀 48%, 중국 25%, 일본 23%), 이는 친정국가에서 농업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한국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농촌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한국 사회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둔 언어와 문화교육 등 기초교육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농업교육과의 연계성이 미약하며, 여성결혼이민자를 전문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단계별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결국 정부의 관리 및 개입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육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농업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양순미 2006b, 양순미 · 한준희 · 양정남, 2009).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육체적 농업노동에 의존하게 만들고, 이러한 노동집약적 영농방식은 농업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72%가 가사와 육아를 모두 전담하고 있으며, 9%가 가사를 보조하고 육아를 전담, 7%가 육아를 보조하고 가사를 전담, 나머지 12%가 가사와 육아를 보조하고 있을 만큼 현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단함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현재 농촌 지역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32%가 농업 활동

을 수행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육아를 포함한 집안일과 농사일을 병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체적 노동의 부담감이 물리적, 시간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적극적 농업교육에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생활교육, 학습단체 활동 등과 같은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높은 농촌 생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적극적으로 농업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양순미·최규홍·강경하, 2009).

## 2.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는 미숙한 한국어 실력과 제한된 외부와의 교류 때문에 농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교통편이 불편하여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농업교육은 교육 필요성에 대한 가족들의 공감을 얻고 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농업교육은 여성 결혼이민자 주변에 있는 선도 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 참여하여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인적 교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현재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 사회에서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일회성이나 단기간이 아닌 총체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농업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멘토링은 지지, 애정, 관

심 등의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통해 멘티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조직적 차원에서 볼 때, 우선 멘토링은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공통의 문화적 가치나 각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바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조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역할 모델로서 멘토는 멘티에게 강한 학습 동기를 불어 넣어 줌으로써 조직의 지식과 경험이 효과적으로 이전되고, 멘토링을 통해 멘티의 잠재 능력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조직의 핵심으로 키워짐으로써 인재가 발굴, 육성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멘토링을 통해 멘토는 멘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고 사고의 다양성을 학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멘토는 대인관계기술이나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멘티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과 함께 조직 문화를 배움으로써 조직에 쉽게 적응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비공식적이고 문서화되지 않은 많은 정보를 얻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2007a).

특히 후견인이 멘토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멘티로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멘토와 멘티가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멘토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즉, 멘티의 입장과 처지를 우선 고려하여 시간 약속을 잡고 기타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며 멘티의 잠재력과 장점을 보고 멘티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에 의해 멘토는 효과적으로 멘티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멘토링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함으로써 멘토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수시로 멘토의 도움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여 멘토로 하여금 교정적 피드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

게 만드는 것에 의해 멘티는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농촌진흥청, 2007b). 결론적으로 멘티와의 수평적 상호 작용을 통해 멘티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함으로써 멘토는 효과적으로 멘티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 2.3.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멘토링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하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전국적 규모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행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를 가진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위기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 학업성적 개선, 학교중퇴율 감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김지선, 2002). 국내의 경우, 최근 10여년 사이에 정부와 시민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을 위한 멘토링을 비롯해 성매매가출청소년 멘토링과 같이 일탈과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과 장애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의 멘토링이 실행되고 있다(박현선, 2007).

멘토링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멘토링이 청소년의 대인관계기술, 자존감, 계획성, 학교생활에의 적응, 미래에 대한 목표 설정, 학업능력 향상 등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박현선, 이세용, & 권혜진, 2007; 채형일, 2001; 하성민, 2001). 그러나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멘토와

멘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Yeh, Ching, Okubo, & Luthar(2007)의 연구는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23명의 고등학생들이 4명의 동료 고등학생들을 멘토로 만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8주 동안 진행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고등학생들은 다양한 활동과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높은 상호 신뢰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8주라는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많이 향상되지 않아 연구는 좀 더 장기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특정 학교에 다니는 적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의 새로운 문화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의도적 표본추출 전략을 이용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와 연관된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참여자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례의 맥락이나 현장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에 의해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사례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것을 통해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증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의도적 표본추출 전략(Purposeful Sampling) 중 하나인 ‘기준표본추출(Criterion Sampling)’을 이용해 5개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였다(Creswell, 1998). 이 의도적 표본추출 전략의 근거는 사람이나 조직, 공동체와 같이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들’을 연구하는 것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을 실험적으로 일반화하는 것보다 철저한 연구 논문을 생산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Patton, 2002, p. 230). 연구자는 이 질적 연구의 중심적인 논쟁인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탐구할 수 있고, 몇 가지 미리 결정된 중요한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들을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통해 재검토하고 연구하는 ‘기준 표본추출’을 선택하였다. 이것의 초점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례들’을 이해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프로그램이나 체제의 증진과 연관된 중요한 체제의 결점들’을 밝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Patton, 2002, p. 238).

본 연구의 기준표본추출에 사용된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 1) 참여자들은 이 연구에 자진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 2) 참여자들은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도 ‘이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3) 참여자들은 2009년도 ‘이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자들로 2010년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4) 참여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관리자에 의해 2009년도 ‘이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추천된 자들이어야 한다.

이상의 기준에 의해 본 연구는 5개의 성공 사례를 선택하였고, 각각의 사례와 연관된 여성결혼이민자, 후견인, 관리자 등 총 15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여기서 성공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성공 사례 자체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의도가 관리자에 의해 잘 전달되어 후견인과 여성결혼 이민자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 3.2. 자료 수집 방법

#### 3.2.1. 문헌연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외 연구논문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통계 자료와 선행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 3.2.2. 심층면담

두 명의 연구자들이 여성결혼이민자, 후견인, 관리자 등 1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에 의한 조사를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후견인과 관리자와의 면담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직접 면담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약 15분 정도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음되었으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집이나 관리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모두 몇 가지 탐색하는 질문들을 포함하는 반구조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면담이 끝난 직후 면담자료를 전사하고 요약, 정리하였다. 면담에 이용된 질문들

은 다음과 같다.

### 3.2.2.1.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질문들

왜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이 교육프로그램의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또 어떤 점이 나빴습니까?

후견인과 만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육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이 교육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신의 무엇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교육프로그램에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 3.2.2.2. 후견인에 대한 질문들

이 영농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1:1 영농교육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멘토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멘토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 멘토링 관계가 자아개발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영농교육프로그램에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3.2.2.3. 관리자에 대한 질문들

이 영농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써 1:1 멘토링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를 성공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을 성공 사례로 추천하였습니까?

이 영농교육프로그램에서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영농교육프로그램에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 3.2.3. 현장관찰

두 명의 연구자들은 후견인이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하는 현장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집이나 영농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업교육이 실지로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비디오 촬영한 후 전사하고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경운기 사용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비디오 촬영하고, 후견인이 사용한 단어와 문장 등을 기록하였다.

## 3.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가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료 분석 역시 사례연구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사례연구에서의 분석은 사례나 현장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사례와 그 맥락에 대한 폭넓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서 후견인과 여성결혼이민자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꼼꼼하게 기술하였다.

자료 분석의 결과는 ‘비평 체크리스트(Evaluation Checklist)’에 의해 평가되었다(Stake, 1995, p. 131). 즉 연구자의 역할과 관점이 분명한지, 관찰과 해석이 다원화되었는지, 다양한 맥락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독자에게 대리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해 자료 분석 결과가 평가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이 질적 사례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이용하였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진술에 대해 연구자가 확증을 내릴 때 필요한 것으로, 문헌 연구와 심층면담, 현장관찰을 통해 자료의 출처를 다양화시키고 각 사례

에 연관된 후견인, 여성결혼이민자, 관리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사례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사례 연구

본 사례 연구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도 ‘이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후견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점과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즉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 4.1.1. 참여 동기

사례 1: 후견인 1은 현재 3년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돋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보다는 조직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돋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 A씨는 관리자의 권유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였다.

사례 2: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후견인 2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촌 가족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B씨는 남편의 권유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였다.

사례 3: 후견인 3은 “옆집에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너무나 힘들

게 사는 것을 보면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어머니처럼 여성결혼이민자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 C씨는 관리자의 권유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였다.

사례 4: 후견인 4는 여성결혼이민자 D씨와 옆집에 살면서 남편들끼리도 친한 사이이고 원래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모임도 자주 갖는 사이인데 “후견인으로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D씨는 후견인의 권유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였다.

사례 5: 후견인 5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울리지 않고 있었으나, 마을에 정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 동네 사람으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사업에 참여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E씨는 남편의 권유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였다.

#### 4.1.2. 교육 시간 및 만남 일정 조정

사례 1: 후견인 1은 철저하게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시간약속과 교육내용을 설정하였다. 많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과 가족들의 경우 아직까지 여성결혼이민자가 외부인과 만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고려한 후견인 1은 A씨와 외부에서 만날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A씨를 데리고 나간다.”는 식으로 자세히 알려주었고, 약속을 바꾸어야 할 때에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어찌어찌해서 못 가고 내일 가겠다.”는 식으로 설명하였다.

사례 2: 후견인 2 역시 철저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였으며, 매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을 잡았다. “당장에 교육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을 내 달라고 말하

는 것이 눈치 보이고 어려웠다”는 후견인 2는 항상 시부모님에게 미리 교육이 있음을 알리고 약속시간을 잡거나 B씨에게 “매번 몇 시에 와도 좋은지를 물은 후”에 약속을 잡았다. 교육을 갈 때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반응을 확인한 후 교육을 시작하는 등 후견인 2는 B씨가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상황과 요구를 말할 수 있도록 상호신뢰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례 3: 후견인 3은 여성결혼이민자 C씨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오전 시간대에 주로 C씨를 방문하여 교육하였다. 자신의 농사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3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거의 30회 정도를 방문하여 하루에 2-3 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례 4: 후견인 4와 D씨는 아주 친한 사이이고 서로의 과수원이 매우 가까이 있어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히 약속을 정해 만나기보다는 수시로 방문하여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일하는 중간 중간에 새참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교육하였다.

사례 5: 후견인 5는 E씨를 5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교육하였고, 마늘 수확기에는 마늘의 특성상 출하시기에 따라 마늘 가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육이라기보다는 함께 농사일을 품앗이하는 차원에서” 거의 매일 만났다.

#### 4.1.3. 교육 방법 및 내용

사례 1: 후견인 1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처지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번은 후견인 1이 A씨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마당에 널려 있는 빨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마루에 큰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몰라 추운 겨울에도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후견인 1은 즉시 A씨에게 세탁

기 사용법과 집안 정리 정돈하는 법 등 살림하는 법을 꼼꼼히 가르쳐 주었다. 후견인 1은 “몇 달 동안 영농교육 하나에만 치중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생활하는 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하고 진정 원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가령 A씨가 “오이소박이를 담고 싶다”고 하면 “오이랑 부추를 사서 썰어 놓으라.”고 한 후, 다음에 가서 그 방법을 가르치는 식으로 교육하였다.

사례 2: 후견인 2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표정의 변화 속에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교육의 효과가 가지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교육하였다. 처음에 B씨의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 다가가기가 어려웠다”는 후견인 2는 B씨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 갈 때마다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이나 애들이 먹을 것 또는 B씨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사 가지고 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B씨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확인했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보였으며, “집도 처음에는 저 저분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나중에는 청소도 해 놓고 교육할 때는 음료 수도 내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B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교육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따로따로 만나 각자의 고충을 듣고 서로에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시키면서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교육을 하였다.

사례 3: 후견인 3은 C씨의 높은 성취욕과 배움에 대한 갈망을 간파하고 생산성 높은 품종을 심고 기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용법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경운기 작동 법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경운기에 타서 일일이 작동 부위의 이름과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직접 C씨가 동네를 돌면서 작동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성 높은 마늘 품종을 C씨가 기존에 재배하던 마늘 품종 옆에 심고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후견인 3은 C씨의 요구에 의해 마늘종 담그는 법부터 고추장 담그

는 법, 정리 정돈하는 법, 청소하는 법, 그리고 통장 관리와 가계부 작성 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C씨가 4살짜리 아들의 육아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보고 후견인 3은 자신이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으며 연령에 따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효과적인 육아법인지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었다.

사례 4: 후견인 4와 D씨는 가까운 이웃에 살면서 이미 16년 동안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후견인 4와 D씨는 서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함께 답을 찾는 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복숭아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이것은 간격을 어떻게 두고 하는 게 좋다” 또는 “나는 저번에 이렇게 남겨놓고 하니 무엇이 나쁘다”는 식으로 서로 의논을 해 가면서 “고칠 점은 서로 고치고 모르는 것은 서로 물어보는 식으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나갔다”고 한다. 후견인 4와 D씨는 “정확한 답을 찾아 서로가 좋은 쪽을 따라가려다 보니 서로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서로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사례 5: 후견인 5는 E씨에게 영농교육보다는 “동네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참여토록 하는 데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즉 E씨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이라기보다는 같이 지내며 함께 일을 하는 이웃으로서 E씨를 대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고추장, 된장, 김치 담그는 행사나 동네 사랑방 모임,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가는 도내 관광여행 프로그램 등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E씨를 참여시켰다. 처음에는 그러한 모임에 가는 것을 꺼려하던 E씨가 “이제는 가지고 하면 선뜻 따라 나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도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반기는 등 아주 적극적으

로 변하였다”고 한다.

#### 4.1.4. 성공적인 관계 형성의 요인

사례 1: 사례 1이 성공적인 가장 큰 요소는 후견인 1이 철저하게 여성결혼이민자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시간약속과 교육내용을 설정하였고, A씨뿐만 아니라 A씨의 남편, 가족들에게 높은 신뢰를 심어준 것이다. 사례 1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후견인 1이 자신의 대인관계기술과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점이다. 현재 후견인 1은 자신이 “좀 더 지식을 쌓고 체계적으로 이주 여성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3시간이 걸리는 전문대를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을밟고 있다. 후견인 1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이러한 동기를 부여해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하고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에까지 참여하는 후견인 1의 뛰어난 자기관리와 성실성은 그 자체로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좋은 역할모델이 되고 있다.

사례 2: 매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을 잡고,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상황과 요구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신뢰에 기반을 두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처지와 상황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 후견인 2의 성공 요인이다. 사례 2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후견인 2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잠재력과 장점,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평가하였으며 교육이 끝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후견인 2는 B씨와의 대화를 통해 B씨가 “고향에서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B씨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다. B씨는 “고향에 있을 때 올케 언니가 어머니한테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방식 그대로 자기도 시어머니를 대했다”고

하였다. 결국 후견인 2는 B씨와 시부모님과의 불화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와 갈등임을 서로에게 이해시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B씨가 어느 정도 웃는 얼굴로 서로 대화하고 B씨가 시어머니 식사도 챙겨줄 정도로 관계가 호전되었으며, 이러한 B씨의 변화에 시어머니는 무척 좋아하면서 후견인 2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 결국 후견인 2는 교육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교육을 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사례 3: 사례 3이 성공적인 이유는 후견인 3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해와 관심 정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준비 정도에 맞는 자료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의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즉 C씨의 요구에 의해 후견인 3은 생산성 높은 품종을 심고 기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용법, 마늘종 담그는 법, 고추장 담그는 법, 정리 정돈하는 법, 청소하는 법, 그리고 통장 관리와 가계부 작성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사례 3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후견인 3이 C씨로부터 얻은 새로운 정보나 사고방식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격려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메주를 쑤고 남은 콩을 보통 사람들은 버리는데 C씨는 “그것을 췄어서 먹을 수 있느냐?”고 물을 정도로 “버리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알뜰하게 사는 것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후견인 3은 말했다. 후견인 3은 C씨의 알뜰함을 자주 칭찬하였고 “그렇게 살면 빠른 시일 안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심으로 격려하였다. 또한 C씨의 부지런함과 강한 삶의 의지, 배운 것을 곧 바로 실천에 옮기는 추진력을 보고서 후견인 3은 C씨에게 “농사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배워 스스로 농사를 짓고 돈도 많이 벌 것”을 격려하였다. 결국 후견인 3은 C씨의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

며,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준 C씨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교육을 가기 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고마움을 보답하였다.

사례 4: 사례 4는 상호 신뢰에 근거하여 주체적이고 수평적인 후견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를 보여준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D씨는 조선족으로서 처음부터 한국말을 잘했기 때문에 후견인 4와 쉽게 가까워 질 수 있었으며 간장, 된장, 고추장 만드는 법 등 한국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후견인 4로부터 배웠다. 처음에 D씨가 “공공기관에 가서 해결 할 일이 있으면 후견인 4가 선뜻 나서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었고 싸게 물건 파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거나 같이 가 주었다”고 한다. 요즘은 오히려 후견인 4가 D씨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어디를 갈 때 D씨가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중국 만두 만드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례 4의 또 다른 성공요인은 D씨가 후견인 4와 주체적이고 수평적인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멘토링 관계가 D씨의 삶과 경력에 변화를 가져온 점이다. 이 사업을 통해 D씨는 “향후 후견인으로 다른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시켜 보겠다.”는 목표가 생겼으며,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야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후견인 4와의 관계를 통해 D씨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후견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후견인이 되고자하는 목표를 정하게 된 것이 이번 사례의 가장 큰 성과이다.

사례 5: 사례 5는 후견인 5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다양한 공동 활동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어 지역공동체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에 성공적이다. 교육을 하면서 후견인 5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농사짓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가족으로부터 자연히 익힐 수 있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이질감은 절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7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치면서 후견인 5는 E씨와 친자매처럼 가깝게 되었고, 온전한 한동네 사람으로서 E씨가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집에 가서 얘기를 나누며 밝은 표정으로 지내는 것에 크나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사례 5가 성공적인 또 다른 이유는 후견인 5가 농사도 짓고 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마을 행정이나 마을 주민들이 은행에 직접 가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는 등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쌓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에 후견인 5가 E씨의 “가족들에게 이번 교육을 제안했을 때 지체 없이 동의를 얻을 수 있었으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이를 봐주는 등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후견인의 가장 필요한 자질로 “잘난 체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강조할 만큼 후견인 5는 항상 스스럼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주민들을 위한 일에 힘써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견인 5의 자질이 E씨와 그 가족에게 믿음을 주었고, 좋은 역할 모델로서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점이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다.

## 4.2. 논의

### 4.2.1. 멘토링 프로그램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영향

#### 4.2.1.1. 대인관계기술 터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받은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도 대인관계기술을 터득하여 적극적으로 농촌사회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후견인과의 관

계를 통해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친하게 되는 등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다. 결국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는 후견인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지역공동체 및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4.2.1.2. 한국 문화에 대한 이질감 해소

여성결혼이민자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영향은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 음식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효과적으로 후견인으로부터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4.2.1.3. 지역공동체에 대한 유대감 형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화 상대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리적 안정, 동료 의식, 소속감과 같은 정신적 위안을 얻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바깥출입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후견인을 만나 자신의 과거사,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등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후견인에게서 무엇을 배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후견인을 만났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준의 일회성 행사로 시행되었던 많은 프로그램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견인과의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공동체 내에 소속감을 가지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타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 4.2.2. 멘토링 프로그램의 후견인에 대한 영향

##### 4.2.2.1.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후견인들은 영농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부단히 학습할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즉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농사일을 가르쳐 주는 것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후견인들은 농업관련서적을 찾아보거나 농업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자기학습이 동기화되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농업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학습의 욕이 고취되고 농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후견인들은 상호적인 자기개발에의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 4.2.2.2. 다양한 관점과 사고방식 수용

멘토링 프로그램이 후견인들에게 미친 또 다른 영향은 후견인들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과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후견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고와 행동이 그들이 살아온 친정국가의 문화와 환경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우리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기보다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후견인들

의 의식의 변화가 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영향의 결과이다.

#### 4.2.2.3. 상호 신뢰의 중요성 인식

멘토링 프로그램은 후견인들에게 긍정적 사고와 행동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멘토링의 핵심이 인간과 그 변화에 대한 무한한 신뢰임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후견인들은 이 멘토링의 궁극적 목적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농촌 정착임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장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후견인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이 처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멘토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정적 사고와 감정들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하였다. 결론적으로 후견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변화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노력하는 멘토로서의 바람직한 자질을 키워가게 되었다.

#### 4.2.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한계

이상과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도 ‘이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은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농업교육 외에도 한국 음식 만드는 방법이나 문화에 대한 정보를 후견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으며, 대인관계 기술의 터득으로 적극적으로 농촌 지역공동체 문화를 배움으로써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후견인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관점과 사고방식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잠재력과 변화 가능성을 믿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공적인 멘토와 멘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짧은 기간 안에 전국에서 630쌍의

후견인과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함으로써 여러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 4.2.3.1. 취지와 방향의 모호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진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자가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5명의 관리자들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당시 프로그램의 취지와 의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관리자 개인의 역량에 의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후견인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자가 임의로 후견인을 선정하였고, 후견인을 위한 교육 내용도 관리자가 임의로 설정하고 비계획적으로 가르쳤다. 이는 장기적 관점 하에 프로그램의 성과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계승되기 힘들다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 4.2.3.2. 여타 사업과의 연계 부족

관리자가 이 프로그램을 여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들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한국에 온지 3년이 안된 처지라 한국어가 능통하지 못하였고 이점이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후견인들에게 농업교육 외에 한국어 교육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제한된 한국어 실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없어서 후견인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만큼 지역의 다

양한 모임과 행사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들을 통해 관리자-후견인-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필요하다.

#### 4.2.3.3. 주체적 참여 미흡

관리자, 후견인, 여성결혼이민자 모두가 이 프로그램의 주체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 함께 지혜를 모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즉 참여자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제한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특히 지역적 특성, 후견인의 개인적 경험,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처지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끊임없이 토론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열린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정보와 제안에 귀 기울이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도 ‘이주여성 1:1 맞춤형 영농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의 관점과 입장에서 2009년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적인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

다. 2009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 약 630쌍 중 ‘기준 표본추출’에 의해 5개의 성공 사례를 선택하여 심층면담과 현장 관찰을 통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었다.

일회적이거나 양적 측정에 의해 시행되었던 기존 연구나 프로그램과 달리 본 사례연구는 1:1 멘토링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의 관계를 설정하고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계를 맺어 가는지를 보여주었다. 멘토링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동기화되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멘토링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와 후견인이 무엇을 고민하며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대리 경험의 기회를 주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교육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기술 및 생활적응기술 등을 배웠으며 농촌 문화와 지역공동체 생활과 관련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감 있게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후견인 역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역할모델로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성을 갖추어 가려고 노력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개인적 고민과 관심사, 욕구, 가치관에 귀 기울이며,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장점을 찾아내어 격려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상호 신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멘토로서 후견인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을 위한 교육 내용과 구체적 활동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후견인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음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의한 육체적 고단함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

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간적 제약은 후견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로 이는 교육 참여 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의해 개선되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여타 사업과 연계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정부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연구는 짧은 기간 안에 소수의 참여자들에 의해 실행되어 많은 제한점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현 상황에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조사, 검토한 첫 번째 시도로써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의해 향후에 실시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 김이선, 정혜숙, 김영주. (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여성정책과.
- 김지선. (2002).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나병선. (2007). 멘토, 멘티의 역할과 핵심스킬. 2007년도 농촌 다문화가족 멘토링 워크숍 자료집(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2007a).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 심포지엄.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2007b). 농촌 다문화가족 멘토링 워크숍. 농촌진흥청.
- 류재석. (2009). 여성 리더개발 멘토링 이야기. 한국학술정보.
- 박현선. (2007).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현주소 꿈 to U 멘토링 사업 보고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 박현선, 이세용, & 권혜진. (2007).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양순미. (2006a).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 양순미. (2006b).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5, 111-128.
- 양순미 · 한준희 · 양점남. (2009). 농촌 다문화여성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6(2), 253-284.
- 양순미 · 최규홍 · 강경하. (2009).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촌지도와 개발*, 16(4), 713-742.
- 전남대학교. (2009).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채형일. (2001).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일선 · 조운주. (2008). 국제결혼 자녀를 위한 교육 멘토링. 교육과학사.
- 하성민. (2001).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염 · 김양은 · 박영애 · 정선애 · 장민혜. (2006).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Creswell, J. W. (1998).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학지사.
- Dewalt, K. M., & Dewalt, B. R. (2002). *Participant observation*. Lanham, MD: Altamira Press, A division of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3<sup>rd</sup>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Yeh, C. J., Ching, A. M., Okubo, Y., & Luthar, S. S.(2007). Development of a Mentoring Program for Chinese Immigrant Adolescents' Cultural Adjustment. *Adolescence*, 42(168), 733-747.

[REDACTED] 논문투고일: 2009. 12. 17

[REDACTED] 1차수정일: 2010. 02. 21

[REDACTED] 2차수정일: 2010. 05. 25

[REDACTED] 게재확정일: 2010. 06. 18